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0호 【루게 제24633호】주제 103(2014)년 8월 8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27일과 2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로씨야의 예호 모스크비방송, 중국의 《길림신문》, 《환구시보》, 보도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망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감 떨쳐나선 유명무명의 령사들이 발휘

한 영웅적위훈이 깃들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취된 조국수호정신은 조선혁명의 고귀한 정신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대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 일본의 교도통신, 쿠웨이트의 쿠나통신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으며 중국의 신화망, 방송망, 중국망은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전강고공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보시고 교양마당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일신시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 개실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대한 구상과 손길아래 창립되고 발전하여온 기업소가 인민경제발전에서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중국 보도망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사상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예술선전대의 창작자, 예술인들이 앞으로 혁명적이며 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었다.  
중국 보도망은 또한 김정은령도자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결정경기를 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높은 축구기술과 정신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파시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들의 정치적투쟁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조선의 원칙적립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시보》, 《신화대일통신》,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민망, 팜평망, 동북망,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 미국의 VOA방송, 인터넷신문 《글로벌 포스트》, 일본의 지지통신, NHK방송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을

로씨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쓰르비아당당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로씨야 나흐트카 포르마트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의 요지를 소개한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의 요지를 소개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쓰르비아당당 인터넷에 게재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블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의 요지를 소개한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짐바브웨 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와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 라 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짐바브웨 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 창건 51돐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  
우리는 짐바브웨 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당이 온갖 난관과 도전을 이겨내고 나라의 안정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크 각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제3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대회에서 당선이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  
이번에 당선이 베네수엘라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의 중임을 지니게 된것은 당선에 대한 귀 당 전체 당원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된다.  
우리는 이 기회에 귀 당 제3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당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반제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지식경제건설을 적극 추동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격대들에서

전국각지에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대상에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들이 과전되어 활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과전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들에서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술성있게 풀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이고있다.  
이러한 속에 여러 단위에 과전되었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들에서 맡겨진 과제를 원만히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격대활동을 강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

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  
수산농업경영위원회에 과전되었던 농업과학원과 여러 단위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원들은 강양이종자의 약 2.5배를 95%로 보장하고 굴뚝이 등 지하해 추수체율이 85%이상인 정보당 수출을 훨씬 높일수 있는 강양이종자파복제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면서도 질 좋은 강양이파복종자를 농업생산에 전면적으로 도입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고있다.  
사리원트락포르부속공공장에 과전되었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구상혁신추진생산기술을 모든 공업부문에 도입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망라된 이 돌격대에서는 우리 나라의 원료조건에 맞으면서도 당건설기와 연신률과 같은 질적지표가 보장된 구상혁신추진생산공정을 확립

하고 고급추진물품을 생산하는 기술공정을 새로 확립함으로써 현재 수백의 석탄을 절약하고 생산량을 40~50% 낮추어 질 좋은 트락포르부속물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평양고무공장에 과전되었던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등 여러 단위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원들은 세계적수준에 맞는 현대적인 벤트생산공정과 평양고무공업공정을 확립하여 생산면적을 훨씬 줄이면서도 V대대를 비롯한 고무제품의 수명과 생산성을 1.2~2배로 높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고있다. 이 지점에서 막대한 량의 진동탐사계장판과 예비부품 및 세브람사매장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하여 평남북부지구에 석탄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인민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과학자들과 과학화실현을 위하여 고안된 과학화실현부문에 과전되었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에서는 귀중한 성과들을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해결하고 과학기술로 지식경제건설을 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평남북부지구에 과전되었던 김일성종합대학 중앙물리탐사대, 중앙방공지원소단,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원들은 평남북부지방의 넓은 지역에 대한 수자자료를 구축하고 첨단정보처리방법을 받아들여 이 지점에서 막대한 량의 진동탐사계장판과 예비부품 및 세브람사매장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하여 평남북부지구에 석탄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인민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과학자들과 과학화실현을 위하여 고안된 과학화실현부문에 과전되었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격대에서는 귀중한 성과들을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해결하고 과학기술로 지식경제건설을 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삼지연군을 비롯한 백두산 지구를 잘 꾸리는것은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전열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백두산이래 첫 동녘인 삼지연군이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해 1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면서 삼지연학생소년공군개건보수와 인공탄터군수기지건설을 비롯하여 군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량강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에서 계절적제한을 받지 않게 받는 삼지연군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여름철에 여러 대상들의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번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 대상에는 군지방공업공장들과 발전소, 답사숙영소, 체육 및 문

화시설, 포터지구의 농업생산건물 등 60여개 대상들이 포함된다. 이밖에 새로 4개 대상의 건설을 일떠세워야 한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삼지연군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보다 훌륭히 변모되게 된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공사에 달려나온 각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같이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백두산지구 체육촌개건을 맡은 체육성의 건설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가고있다. 이들은 특히 지붕과 실내개건공사를 비롯하여 빙상호제이상의 내외부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력량과 기개수단을 집중하여 삼지연학생소년공군개건보수와 인공탄터군수기지건설을 비롯하여 군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량강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에서 계절적제한을 받지 않게 받는 삼지연군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여름철에 여러 대상들의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번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 대상에는 군지방공업공장들과 발전소, 답사숙영소, 체육 및 문

화시설, 포터지구의 농업생산건물 등 60여개 대상들이 포함된다. 이밖에 새로 4개 대상의 건설을 일떠세워야 한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삼지연군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보다 훌륭히 변모되게 된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공사에 달려나온 각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같이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백두산지구 체육촌개건을 맡은 체육성의 건설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가고있다. 이들은 특히 지붕과 실내개건공사를 비롯하여 빙상호제이상의 내외부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력량과 기개수단을 집중하여 삼지연학생소년공군개건보수와 인공탄터군수기지건설을 비롯하여 군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량강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에서 계절적제한을 받지 않게 받는 삼지연군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여름철에 여러 대상들의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번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 대상에는 군지방공업공장들과 발전소, 답사숙영소, 체육 및 문

화시설, 포터지구의 농업생산건물 등 60여개 대상들이 포함된다. 이밖에 새로 4개 대상의 건설을 일떠세워야 한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삼지연군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보다 훌륭히 변모되게 된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공사에 달려나온 각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같이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백두산지구 체육촌개건을 맡은 체육성의 건설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가고있다. 이들은 특히 지붕과 실내개건공사를 비롯하여 빙상호제이상의 내외부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력량과 기개수단을 집중하여 삼지연학생소년공군개건보수와 인공탄터군수기지건설을 비롯하여 군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량강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에서 계절적제한을 받지 않게 받는 삼지연군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여름철에 여러 대상들의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번 개건보수 및 현대화공사 대상에는 군지방공업공장들과 발전소, 답사숙영소, 체육 및 문

## 철도지원사업을 힘있게

합경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도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철길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합경북도에서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도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철도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만㎡의 자갈깨기와 자갈정소를 진행하고 천수백km의 철길로반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백수십㎡에 달하는 철길주변의 들썰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수백개소의 수통을 정리하고 수십만그루의 왜사리나무를 심어 철길주변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었다.  
도에서는 또한 철길교착물과 삼, 용접봉을 비롯하여 많은 지원물자와 침목을 마련하여 정전

철도국에 채길대들에 보내주었다.  
도당 위원회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철도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책임일군들은 자신들이 직접 철길을 밟아보면서 현지에서 협의회를 진행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시, 군당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도급기관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앞장서서 실천적모범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도지원사업에 주안담게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경원군과 부령군, 김책시가

모범을 보이고있다.  
경원군에서는 모두가 떨쳐나 군적으로 1만여명의 침목을 비롯하여 수많은 철길교착물과 채간유지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철길대들에 보내주었다.  
김책시에서는 수km구간의 용벽공사를 진행하여 콘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고있다. 또한 차갈이선들의 자갈정소를 진행하고 철길주변과 철도역구역들을 진심으로도 와주어 역구내철길과 역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다.  
부령군에서는 철길담당제를 실시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맡은 구간의 철길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철길강도를 높이고 철길주변을 위생문화

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다.  
회평시와 경성군, 어랑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철도지원사업에 주안담게 참가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도인민위원회와 도수산관리국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도급기관들에서도 철도지원사업에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에 고무된 청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선사들은 5.18무사고정신전초와운동의 불길같이 중추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떠안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는 애국력적물공장의 로동계급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만사 사람의 입장을 억세게 틀어잡으며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는 근본비결의 하나는 그것이 역사에 전무후무한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라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전반구성과 내용인 인민대중중심의 관점과 림장,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일관되어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다. 지금까지 인류사상에서는 각각각색의 사조들이 존재하였지만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판명된 것렇듯 위대한 사상은 없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지난 시기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그 대변자들은 그 어떤 《특출한》 개인에 의하여 역사발전이 규정된다고 역설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개인이 아니라 대중을 창조한다는것이 밝혀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 생산력발전의 담판자로 된다는 전제에서 제기된것이였다. 이러한

종래의 견해와 관점에 중지를 찍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혁명사상이 다름아닌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동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라는 것이 독창적으로 밝혀지고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고 대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이 제시되게 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복무시키나갈데 대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라는것을 밝히고 당과 군대, 국가인 인민의 헌신적복무무기로 건설되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도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리익으로 풀이할데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견지에서 보고 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투쟁의 종국적목적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참답게 실현하고 그들을 자언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것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전략과 전술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여주었고 있다. 주체의 혁명방법도 인민대중에게 충실하게 복무하면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원칙과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 이것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내세우는 숭고한 리념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명실공히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뒤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그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여주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혁명하는 당이 사람과 사업, 인간관계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혁명과 건설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는 불멸의 지침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사회주의의 철학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대하는 인식과 개조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을 주며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혁명방법은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원칙과 원칙, 방향과 방법들을 명시하여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여 건설된 우리 나라에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이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과 결부되어 불리우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적극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을 외면한 정치사업, 강연자료나 해설책장을 읽어주는것으로 그치는 식의 사상사업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일하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 불려들이는 사상사업이야말로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사상사업으로 될수 있다. 모든 강사일꾼들은 항일유격대의 선전일꾼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정치일꾼들이 항일의 혈전장과 불타는 고지에서 하던 전투적이며 호소적인 선전동맹방법을 따라배워 사상사업을 화신식으로 드세게 벌림으로써 오늘의 사상전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야 한다.

다음으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쫓아버리는 사상공세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겠다. 오늘의 사상전은 세기와 님은

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퇴보, 전진과 담보, 폐기와 쇠사이의 투쟁을 동반한다. 투쟁이 없는 혁명의 승리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면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발붙일수 없게 사상의 모기장을 든뒤 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주역을 높이고는 현 시기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고동치는 우리 혁명대오를 왜곡시키려는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사상의 붉은 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는것이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이다.

참으로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이야말로 모든 사상일꾼들이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오늘의 사상공세에서 승리를 안아오게 하는데서 더없이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리 강 철

## 전형단위위의 창조와 일반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집적적혁신운동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의 자랑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부문에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차기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신것이 우리 수령님이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지금 군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범세로 하여 림대적창조를 일으키는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범세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해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집적주의를 본성으로 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투쟁방법이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하면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이끌어주어 사회에서 더 높고 더 높은 집적단위의 차미가 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경쟁열풍이 휘몰아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를 전형단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당조직들이 전형단위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방법을 당 단위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 아니라 그 단위가 자체의 힘으로 전형단위가 되도록 떠밀어주는 방법으로 하며 모든 단위들이 전형단위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경쟁을 활발히 벌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공장, 기업소, 농장에서 전형단위, 전형농장을 창조하고 다른 작업반과 분조들이 그 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당조직들과 일꾼들이 앞장에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양시키고있다.

현실은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단위들이 전형단위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신심을 가지게 되면 먼 저기일에 맞겨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공장, 우리 농장, 우리 일터가 전형이 되자, 이런 과업을 가지고 그 높은 신심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헌신하는 일해나갈 때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 제 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략전술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뜻밖이기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밀고 나가며 혁명적대오의 불도끼니로 부를 부를 끊게 하는것입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그 어디에서나 비산의 불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선군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을 높이 떨치도록 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이다.

우리 당의 사상전지는 언제나 방아쇠가 아니라 공격으로 편성되어 있다. 낡은 사업방법과 도식적인 틀을 깨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격적으로 진행해나갈 때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

이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사상적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선진군민의 정서들을 불려들이는 정치사업을 화신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화신식정치사업으로 선진군민의 정신력을 발양시켜 사회주의 건설투쟁을 위한 사상사업을 화신식으로 드세게 벌림으로써 오늘의 사상전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야 한다.

다음으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쫓아버리는 사상공세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겠다. 오늘의 사상전은 세기와 님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을 외면한 정치사업, 강연자료나 해설책장을 읽어주는것으로 그치는 식의 사상사업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일하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 불려들이는 사상사업이야말로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사상사업으로 될수 있다. 모든 강사일꾼들은 항일유격대의 선전일꾼들,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정치일꾼들이 항일의 혈전장과 불타는 고지에서 하던 전투적이며 호소적인 선전동맹방법을 따라배워 사상사업을 화신식으로 드세게 벌림으로써 오늘의 사상전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야 한다.

다음으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쫓아버리는 사상공세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겠다. 오늘의 사상전은 세기와 님은

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퇴보, 전진과 담보, 폐기와 쇠사이의 투쟁을 동반한다. 투쟁이 없는 혁명의 승리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면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발붙일수 없게 사상의 모기장을 든뒤 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주역을 높이고는 현 시기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고동치는 우리 혁명대오를 왜곡시키려는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사상의 붉은 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는것이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이다.

참으로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이야말로 모든 사상일꾼들이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오늘의 사상공세에서 승리를 안아오게 하는데서 더없이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리 강 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간다. -주체사상탑에서- 본사기자

##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 현지지도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사적표식비, 현지지도표식비, 만경대애국농장공장과 함흥편지공장, 평양양말공장에 건립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표식비, 만경대에 국농장공장에 세워졌다.

혁명사적표식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76(1987)년 3월 9일 공장을 방문하시어 생산공정간 균형을 맞추고 농장생산능력을 높이며 형태가 복잡하고 규격이 작은 알루미나형체들을 뽑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흥편지공장에 건립된 혁명

사적표식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46(1957)년 5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편지공장의 질을 높이고 조업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게 대하여 교시하신 명도업적을 전하고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100(2011)년 12월 이곳에 오시어 공장을 고수확된 최첨단설비들을 갖춘 표본공장으로 꾸리고 질 좋은 편지공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 주게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99(2010)년 12월 10일과

주제 101(2012)년 7월 2일 공장을 찾으신데에 길이 빛나어갈 일념을 안고 해당 단위 일꾼들과 조업원들을 혁명사적표식비와 현지지도표식비를 훌륭히 건립하는데 총정을 바치었다.

혁명사적표식비, 현지지도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불멸의 령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의 시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더욱 힘있게 다그치시는 우리 당의 사상적일색화는 혁명적위업의 승리를 위한 선봉선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의 성스러운 단계가 될수 있어있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금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당김일성주의의 화를 당건설의 근본 문제로 내세우고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할 선군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령적 지도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어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었습니다.》

사상적일색화는 당의 본성적요구이며 존재방식이다. 사상적순결성, 바로 여기에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전당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의 선결조건으로, 기본열의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안에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차지고 수령님의 교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둥이 확립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령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전당김일성주의의 화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어오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토대로 하여 활력있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근본지침이 있고 우리 당을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켜오는 과정에 이룩된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신데 있다.

당시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려면 위대한 혁명사상, 올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 만사 사람의 입장을 틀어잡고

실천투쟁속에서 커다란 변혁을 안아오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가지고있는 당만이 사상적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력사적지위를 밝히시기 위해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편찬하고는 깊이 연구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령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선행리론의 제한성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고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으로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신것은 우리 혁명의 사상리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김일성주의의 건립력과 생활력을 비약히 높인 선봉선 공적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기치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립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가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시켜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것이다.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모든 당원들을 주체혁명의 혁명가, 당정책위업수행의 투사들로 키우신데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실현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원들이 당정책을 세차게 익히도록 하여 사업하도록 혁명하도록 하시므로 당정책집행과정이 곧 혁명과정, 사상적일색화과정으로 되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원들을 당정책의 적극적인 지지자, 철학적 옹호관찰자로 키우는데 크나큰 공헌을 기울이시었다. 모든 당원들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수령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혁명적열의를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당정책관철에서 불씨가 되고 용감한 돌격투사, 완강한 선전가 되도록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자력쟁쟁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진척배기혁명가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삶의 요구로 되고있다. 는 나라에 울려 퍼지는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에는 당중앙의 구상과 지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수백만 당원들의 혁명적기치가 비쳐있다.

오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 이 힘있게 벌어지는 강성국가건설의 전수행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는 온갖 이적의 돌과구를 열어제기는 당원들이었다. 혁명선진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고 슬기와 힘을 키운 당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당의 높은 권위는 백방으로 울리우고 우리 조국은 조선속으로 불길고 높이 끊임없이 비약하며 솟구쳐오를것이다.

우리 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발전공부하시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혁명적지침들을 확립하시어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당으로 꾸밀어 빛내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군건설에서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 제 4차 세로비서대회와 조선로동당 제 8차 사상일꾼대회에 대한 혁명적의 사상적일색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고귀한 지침을 안겨준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인민군 편향파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지대사령관을 몸소 조지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원들이 당정책을 세차게 익히도록 하여 사업하도록 혁명하도록 하시므로 당정책집행과정이 곧 혁명과정, 사상적일색화과정으로 되게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원들을 당정책의 적극적인 지지자, 철학적 옹호관찰자로 키우는데 크나큰 공헌을 기울이시었다. 모든 당원들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수령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는 혁명적열의를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당정책관철에서 불씨가 되고 용감한 돌격투사, 완강한 선전가 되도록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자력쟁쟁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예로와



조국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르배우고있다. -백두산밀영혁명전지대에서- 본사기자 전성 남 찍음

## 당보에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재령군 래림리당원회의에서

는 당보에 통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리당원회의에서는 당보에 실린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기사를 정성적으로 독보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 하고있다.

리당원들이 농장포전에 나가 진행하는 당보에 통한 사상교양사업은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일마전 제 10작업반에 나간 리당원들은 작업의 율함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양수능장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이 실린 당보를 독보하면서 당원들

과 농장원들이 인민사랑의 길을 걸고 걸으시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마음으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나 가도록 하였다.

리당원회의에서는 한편으로 선동투의 날 운영을 잘하여 그들이 당보에 통한 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로동농원원 조 경 옥







#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진범인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의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부터 책임적이고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리 공화국은 중동적인 평화체제안을 내놓고 그를 안받침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강행하고 1993년에 회대구도의 련합상륙훈련에 이어 사상 회대구도의 련합상륙훈련을 강행하는것으로 대담하였다.

미국은 북과 남이 판문점에서 휴전 가축, 친척들의 상봉행사와 관련한 합의 를 기록해나가는 시기에 《B-52》핵전 력폭격기편대를 들이밀었고 공화국군 부사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 《조지 워싱턴》호 핵항공모함전투집단을 들이밀었다.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위적 인 전술포대투사와 각하인 사령의 포 사격훈련을 포함한 여러가지 군사훈련을 진행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과편찬한 미국은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위협》이나, 《도발》이나 하면 서 떠들어대다 못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에서 그 무슨 《결의안》으로 몰아 《규 탄》하는 놀음까지 또다시 벌여놓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광란적 인 침략전쟁준비와 핵위협은 예외 외면

하고 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 과 함께 《년례적》이라는 광고하에 《을지 용남될수 없는 일방적이며 이증거적인 정적의 산물이다.

미국은 수많은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세계도처에 배치해놓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압력과 위협을 일삼고있다. 핵무기를 쏘면 처음 만들어내어 수많은 핵 실험을 진행하고 인류에게 실제적인 핵 참화를 들춰온 투대형핵비료자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남조 선피괴들과 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을 선 제타격하기 위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강행하고있다. 미국이 《년례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벌여놓는 각종 합 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 기 위한 침략전쟁준비이다. 특히 미국의 방대한 핵타격무력이 동원된 가운데 벌 어진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 습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할것을 노린 《작 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와 같은 북침전쟁계획을 실현에 그대로 옮기기 위한것으로서 도발적성격이 매우 강한 핵전쟁준비였다. 세계적으로 제 일 많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을 벌이고있는 미국이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다 못해 유엔까지 동원하여 《제재》나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얼마나 강도적성보 인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여러 측면에서 더욱 강화 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어제 계인 《THAAD》를 배치하기 위해 획책하

고있으며 8월 중순에는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년례적》이라는 광고하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으려 하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 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내용, 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장비 등으로 볼 때 첩투첩밀 우리에게 대한 기습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준비 이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을 파괴하는 진범인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이 런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에 눈이 멀어 있는것은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력사상 이 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 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 이다. 력적으로 외국무력이 계속 증강되고 전쟁연습수동이 자주 벌어지는 곳에서는 필연적 전쟁이 일어나곤 하였다. 또한 정 상적인것이라고 공개된 군사연습이 실현 으로 넘어간 예들도 적지 않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 정준비를 끊임없이 벌여놓는 파정에 그 가 큰 권력으로 확대될수 있는. 백전백승의 최세의 명장이신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모시어 우리의 최후승리는 확정 적이다.

김철룡

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더 박자가 가해 질것이며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침략적 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 처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행동도 년례화, 정례화될것이다.

말로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군대는 천대만의 요구에 맞게 그 어떤 화려타격무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준비되었 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힘은 힘으로, 정밀타격에는 초정밀타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나갈것이다. 핵전략폭격기 는 핵잠수함이라는 무적의 백두산혁명장 군의 초정밀명중타격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력사적으로 뒤편을 맞고 녹아나기만 한 것이 미제의 수적스러운 전통이었고 비대 한 힘을 믿고 실처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우리의 자랑 스러운 전통이었다. 미국이 생겨나기에 수 많은 대조선정세를 치르어오면서 자기 땅에 폭탄 한개 떨어뜨리지 않은것을 자랑하던 천명으로 여기면서 아직도 그것이 달라질수 없다고 생각하고있는 미제침략 자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우리의 백두산혁명장군의 조준경은 미 국부대의 모든 침략부표를 겨누고있다. 우리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은 가중스 러운 악마의 소름에 무서워한 정벌을 안 기 끝없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서릴것 이고있다.

백전백승의 최세의 명장이신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모시어 우리의 최후승리는 확정 적이다.

김철룡

# 반제투쟁의 기수, 절세의 영웅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3일 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국제기 구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고 글들을 올 렸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 센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 을 모시고 《조국해방전 쟁의 승리를 위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실록》이라는 제목의 글 을 실었다.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려진 진화의 나날 전 선과 후방을 쉬임없이 오가시며 크나큰 믿음 과 사랑으로 군대와 인 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기술로 조 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참으로 3년간의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대원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기술의 승리, 열화 같은 인민사랑의 대승리 라고 믿는다.

《로니아사회의선례당은 《김일성대원수》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김철룡

#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인터넷에 특집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3일 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국제기 구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고 글들을 올 렸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 센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 을 모시고 《조국해방전 쟁의 승리를 위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실록》이라는 제목의 글 을 실었다.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려진 진화의 나날 전 선과 후방을 쉬임없이 오가시며 크나큰 믿음 과 사랑으로 군대와 인 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기술로 조 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참으로 3년간의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대원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기술의 승리, 열화 같은 인민사랑의 대승리 라고 믿는다.

《로니아사회의선례당은 《김일성대원수》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김철룡

미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의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부터 책임적이고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리 공화국은 중동적인 평화체제안을 내놓고 그를 안받침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키 리콜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강행하고 1993년에 회대구도의 련합상륙훈련에 이어 사상 회대구도의 련합상륙훈련을 강행하는것으로 대담하였다.

미국은 북과 남이 판문점에서 휴전 가축, 친척들의 상봉행사와 관련한 합의 를 기록해나가는 시기에 《B-52》핵전 력폭격기편대를 들이밀었고 공화국군 부사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 《조지 워싱턴》호 핵항공모함전투집단을 들이밀었다.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군사적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위적 인 전술포대투사와 각하인 사령의 포 사격훈련을 포함한 여러가지 군사훈련을 진행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과편찬한 미국은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위협》이나, 《도발》이나 하면 서 떠들어대다 못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에서 그 무슨 《결의안》으로 몰아 《규 탄》하는 놀음까지 또다시 벌여놓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광란적 인 침략전쟁준비와 핵위협은 예외 외면

# 미래에 대한 낙관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 가연합)이 창립된 날이다. 1967년 8월 8일 타이의 수도 방콕에서는 동남아시아 5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의 무 상들의 참가에 회가 진행되 었다. 회의끝에 아세안창립이 정식 성립되었다.

아세안은 자주의 기치밑에 단 결하고 협력하여 사회진보와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 원을 반영 하여 창립 되었다.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 의 식민주의적 지배 하에 사회경 제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다.

독립후에도 불공정한 국제경 제질서 등에 의하여 민족경제발 전과 사회건설에서 많은 애 로와 난관을 겪었다.

이 나라들은 새 사회건설과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 오는 과정에 지역적협조를 확대 발전시킬 때만이 많은 문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고 해방하고 사회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 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로부러 아세안원칙들을 지니 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 를 강화하며 이 지역을 외부세 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평화와 자유 및 중립지대로 만드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그를 위 해 힘을 합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적협조기구로서 자국의 대를 넘어 지금은 10 개의 성원국이며 지역의 안정과 사회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있다.

아세안은 해마다 일련의 회 의들을 소집하여 지역의 단합 과 협조를 강화하고 성원국들 의 공동의 번영발전을 다그치

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 의한다.

2008년 12월에 정식 발 호된 《아세안헌장》에 의하면 2015년에 아세안정치안보 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와 아 세안사회문화공동체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가 정식 창립되게 된다.

지난 5월 만마에서는 제 24차 아세안수뇌자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아세안의 목 표와 목적에 대한 자기들의 공 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동남아시아친선 및 협조조약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호혜의 원칙 에 따르는 지역적협력과 이를 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 의하였다.

2011년에는 아세안주재 대사들 회담하였다. 1976년에 열린 제 1차 아 세안수뇌자회의에서 조인된 이 조약은 가입국들사이의 주권 존 중과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 적해결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의 이 조약가입은 자주, 평화, 친선의 터림비에 아 세안헌장과 아세안친선조약에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 지하고있다.

현시기 아세안원칙들은 미 래에 대한 낙관과 확신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전 진해나가고있다. 지역의 안정과 평화, 사회진보와 번영을 위 해 아세안의 활동은 날로 활발 해질것이다.

본사기자

# 조선에 아이들의 《오아시스》가 있다

《올름에는 별한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에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최근 미국 CNN방송이 전하 는 소식이다.

보도에 의거로 자처하는 미국 CNN방송이 소개하는 아이 들의 여름캠프여행지는 다음아 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이다.

지금 조선의 동해명승 송도 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 소리로 북돋아들었다.

푸른 물 설매에는 동해바다, 은모래가 아득하게 펼쳐진 드 넓은 백사장, 파도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대표단 단장 미하일 반체코프총서 기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정치는 더는 미룰수 없는 지상 의 과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 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의 통일 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 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면적대결 10대강령, 고령민중반공화 국강령방안은 북과 남의 리에이 다같이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

# 조선에 아이들의 《오아시스》가 있다

《올름에는 별한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에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최근 미국 CNN방송이 전하 는 소식이다.

보도에 의거로 자처하는 미국 CNN방송이 소개하는 아이 들의 여름캠프여행지는 다음아 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이다.

지금 조선의 동해명승 송도 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 소리로 북돋아들었다.

푸른 물 설매에는 동해바다, 은모래가 아득하게 펼쳐진 드 넓은 백사장, 파도를 넘나드는 흰 갈매기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대표단 단장 미하일 반체코프총서 기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나라의 정치는 더는 미룰수 없는 지상 의 과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 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의 통일 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 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면적대결 10대강령, 고령민중반공화 국강령방안은 북과 남의 리에이 다같이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

# 반제투쟁의 기수, 절세의 영웅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3일 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국제기 구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고 글들을 올 렸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 센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 을 모시고 《조국해방전 쟁의 승리를 위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실록》이라는 제목의 글 을 실었다.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려진 진화의 나날 전 선과 후방을 쉬임없이 오가시며 크나큰 믿음 과 사랑으로 군대와 인 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기술로 조 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참으로 3년간의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대원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기술의 승리, 열화 같은 인민사랑의 대승리 라고 믿는다.

《로니아사회의선례당은 《김일성대원수》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김철룡

#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인터넷에 특집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3일 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국제기 구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고 글들을 올 렸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 센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 을 모시고 《조국해방전 쟁의 승리를 위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실록》이라는 제목의 글 을 실었다.

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려진 진화의 나날 전 선과 후방을 쉬임없이 오가시며 크나큰 믿음 과 사랑으로 군대와 인 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전략기술로 조 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참으로 3년간의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대원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기술의 승리, 열화 같은 인민사랑의 대승리 라고 믿는다.

《로니아사회의선례당은 《김일성대원수》라는 제목의 글 을 올렸다.

김철룡

# 미래에 대한 낙관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 가연합)이 창립된 날이다. 1967년 8월 8일 타이의 수도 방콕에서는 동남아시아 5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의 무 상들의 참가에 회가 진행되 었다. 회의끝에 아세안창립이 정식 성립되었다.

아세안은 자주의 기치밑에 단 결하고 협력하여 사회진보와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 원을 반영 하여 창립 되었다.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 의 식민주의적 지배 하에 사회경 제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다.

독립후에도 불공정한 국제경 제질서 등에 의하여 민족경제발 전과 사회건설에서 많은 애 로와 난관을 겪었다.

이 나라들은 새 사회건설과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여 오는 과정에 지역적협조를 확대 발전시킬 때만이 많은 문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고 해방하고 사회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 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로부러 아세안원칙들을 지니 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 를 강화하며 이 지역을 외부세 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평화와 자유 및 중립지대로 만드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그를 위 해 힘을 합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적협조기구로서 자국의 대를 넘어 지금은 10 개의 성원국이며 지역의 안정과 사회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있다.

아세안은 해마다 일련의 회 의들을 소집하여 지역의 단합 과 협조를 강화하고 성원국들 의 공동의 번영발전을 다그치

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 의한다.

2008년 12월에 정식 발 호된 《아세안헌장》에 의하면 2015년에 아세안정치안보 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와 아 세안사회문화공동체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가 정식 창립되게 된다.

지난 5월 만마에서는 제 24차 아세안수뇌자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아세안의 목 표와 목적에 대한 자기들의 공 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동남아시아친선 및 협조조약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호혜의 원칙 에 따르는 지역적협력과 이를 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 의하였다.

2011년에는 아세안주재 대사들 회담하였다. 1976년에 열린 제 1차 아 세안수뇌자회의에서 조인된 이 조약은 가입국들사이의 주권 존 중과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 적해결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의 이 조약가입은 자주, 평화, 친선의 터림비에 아 세안헌장과 아세안친선조약에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 지하고있다.

현시기 아세안원칙들은 미 래에 대한 낙관과 확신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전 진해나가고있다. 지역의 안정과 평화, 사회진보와 번영을 위 해 아세안의 활동은 날로 활발 해질것이다.

본사기자

# 위성 발사

로씨야는 7월 19일 생 물위성 《포톤-M4》를 좌우 했다.

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케 트 《요우즈-2.1a》가 바이 퍼루우주발사장에서 성과 적으로 발사되었다.

5마리의 도마뱀과 초파 리, 식물씨앗, 미생물을 실 은 위성은 우주를 비행하고 2개월후에 오렌부르크주에 도착하게 된다고 한다.

약물과 의료설비의 질을 검열하는 실험실들이 갖추 어져있다고 한다.

생태환경보호노력

최대정부가 7월 22일 생 태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계 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나라에서는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 전문 가양성, 생물다양성보호 등 50개 항목의 조치들을 취하 게 된다.

출연제한조치

필리핀정부 최근 출연 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 을 제정하였다.

법에 따라 모든 담배제 조업체들은 담배파에 출연 의 해독성을 전전하는 그 림을 붙인 표지에서 담배 를 판매단위들에 내보낼수 있다 한다.

미사일개발권리 주장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 책위원회 위원장이 2일 자위적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란도미 씨일개발은 이란의 양도할수 없 는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누가 《인간》과 《자유》에 대하여 떠 돌기를 제일 좋아하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면 사람들은 첫번째로 미국을 꼽을것이다.

미국의 반동지배층과 어용언론들은 책하면 《자유》를 운운하면서 마지못 하고 미국사회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자유 의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것처럼 설교 하고있다. 그들은 미국을 《자유세계》라 고 하면서 주제를달라는 자분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수단이 라는데 있다.

자본가와 근로자들사이로 로동력을 팔고사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들 에게 팔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게 되 는것은 그들자신의뜻이 아니라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사회제도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모든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이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 을 자본가들에게 팔지 않고서는 살아 갈수 없으며 시시각각으로 《생존의 협박》을 받을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착취의 정도가 높아져있는것 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모두 국소수 례 계층의 손에 장악되어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로 하여 부기부, 빈 의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밖에 안되는 최부유층이 99%의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기 생생중이 살아가고있다.

미국이 부러지는 《자유》는 단순히 말 하여 돈많은자들의 《자유》이다. 즉 돈 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자 유》이다.

미국식《자유》의 반동성은 그것이 근 로대중의 피땀을 짜내고 그들의 자유 와 권리를 유린할때는 자본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수단이 라는데 있다.

자본가와 근로자들사이로 로동력을 팔고사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들 에게 팔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게 되 는것은 그들자신의뜻이 아니라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사회제도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모든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이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 을 자본가들에게 팔지 않고서는 살아 갈수 없으며 시시각각으로 《생존의 협박》을 받을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착취의 정도가 높아져있는것 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모두 국소수 례 계층의 손에 장악되어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로 하여 부기부, 빈 의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밖에 안되는 최부유층이 99%의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기 생생중이 살아가고있다.

미국이 부러지는 《자유》는 단순히 말 하여 돈많은자들의 《자유》이다. 즉 돈 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자 유》이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에 생전돈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자본주 의체제를 밑뿌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사

# 미국식 《자유》의 반동성

미국이 부러지는 《자유》는 단순히 말 하여 돈많은자들의 《자유》이다. 즉 돈 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자 유》이다.

미국식《자유》의 반동성은 그것이 근 로대중의 피땀을 짜내고 그들의 자유 와 권리를 유린할때는 자본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수단이 라는데 있다.

자본가와 근로자들사이로 로동력을 팔고사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들 에게 팔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게 되 는것은 그들자신의뜻이 아니라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사회제도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모든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이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 을 자본가들에게 팔지 않고서는 살아 갈수 없으며 시시각각으로 《생존의 협박》을 받을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착취의 정도가 높아져있는것 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모두 국소수 례 계층의 손에 장악되어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로 하여 부기부, 빈 의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밖에 안되는 최부유층이 99%의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기 생생중이 살아가고있다.

미국이 부러지는 《자유》는 단순히 말 하여 돈많은자들의 《자유》이다. 즉 돈 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자 유》이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에 생전돈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자본주 의체제를 밑뿌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사

# 미국식 《자유》의 반동성

미국이 부러지는 《자유》는 단순히 말 하여 돈많은자들의 《자유》이다. 즉 돈 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자 유》이다.

미국식《자유》의 반동성은 그것이 근 로대중의 피땀을 짜내고 그들의 자유 와 권리를 유린할때는 자본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수단이 라는데 있다.

자본가와 근로자들사이로 로동력을 팔고사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들 에게 팔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게 되 는것은 그들자신의뜻이 아니라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사회제도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모든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이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력 을 자본가들에게 팔지 않고서는 살아 갈수 없으며 시시각각으로 《생존의 협박》을 받을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착취의 정도가 높아져있는것 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모두 국소수 례 계층의 손에 장악되어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로 하여 부기부, 빈 의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밖에 안되는 최부유층이 99%의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기 생생중이 살아가고있다.

미국이 부러지는 《자유》는 단순히 말 하여 돈많은자들의 《자유》이다. 즉 돈 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자 유》이다.

미국 등 서방나라들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에 생전돈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이 자본주 의체제를 밑뿌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사

# 미국식 《자유》의 반동성